

제23차 남극연구 과학 위원회 (SCAR)

'94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이태리 로마에서 제23차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회의가 개최되었다. 31개 SCAR 회원국 및 남극 관련 국제기구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임원선출, 각국의 남극연구소개, 차기 총회 장소 선정 및 남극연구 방향에 관한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중 일본 극지연구소와 극지연구협력약정서를 교환하고 참가국들과 공동연구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남극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남극연구 현황을 소개하였다.

신임 회장에 브라질의 CAMPOS교수가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남극과 전세계적인 환경 변화 연구에 주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각국의 독자적인 연구보다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제24차 총회는 1996년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개최기로 하였다.

“남극 과학 이야기” 출판

1992년 제5차 남극 세종기지 월동대장을 역임한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센터 김수암 박사가 이야기 하듯이 쉽게 쓴 “다정이에게 하는 남극 과학 이야기”가 출판되었다(서울프레스 발행, p.232, 정가 6,000원). 이 책은 저자가 과학의 대중화 및 생활화 필요성에 입각하여 남극의 자연과 생물, 월동생활, 자원, 연구활동 그리고 환경보호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극지과학분야를 마치 옛날 이야기나 여행한 소감을 가족에게 들려주듯이 이야기체로 서술하였다.

'94년 남극과학위원회(KONCAR) 개최

한국남극과학위원회(KONCAR) '94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8일 서울 방배동 소재 가야성에서 개최되었다. 송원오 의장을 비롯한 10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7차 남극과학연구단에서 수행한 연구활동 보고 및 8차(94/95년) 연구단의 활동계획 보고와 토론회를 진행되었으며, 95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9차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ATCM) 준비 현황이 외무부 입한택 서기관에 의해 보고되었다.

제8차 남극과학연구단 하계연구대

극지지구과학연구그룹의 김예동 박사를 대장으로 하는 제8차 남극하계연구단이 '94년 12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출국하였다. 하계연구단에는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국내 관련학계 32명이 외에 일본 교토대의 고츠타기전문가인 Ichikawa교수도 참여하여 '95년 2월까지 세종기지 주변, 리빙스턴 및 김스섬, 브랜스필드 해협과 웨델해 서북부 ice-edge 지역의 해양과 육상의 지질 및 지구물리, 해양생물, 연안환경, 기상 및 고층대기 분야 등을 조사 연구하게 된다. 해양 지질 및 지구물리와 원양조사에는 러시아의 조사선인 5,500톤급의 Yuzhmogeologiya가 임차될 예정이다.

남극과학기지 제8차 월동대

1994년 12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될 월동대원 15명이 관련기관의 추천과 공개 모집에 의해 최종 선발되었다.

대원 중 대기과학, 의사, 중장비 분야는 관

련기관의 추천에 의한 심사로, 시설운영직은 공개 모집하였는데 응시자 60여명 중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6명이 합격되었다.

8차 월동대원은 다음과 같다.

장순근(대장)

황수봉(총무)

장호수(대기과학: 기상청)

김규중(지질 및 지구물리 연구원)

소재귀(해양물리 연구원)

강돈혁(해양 생물 연구원)

이인호(해양 화학 연구원)

김동오(통신)

이정수, 조준행(발전, 전기)

이영재, 신용익(기계 설비)

김한표(중장비: 국방부)

조상걸(의사: 보건복지부)

주광호(조리)

